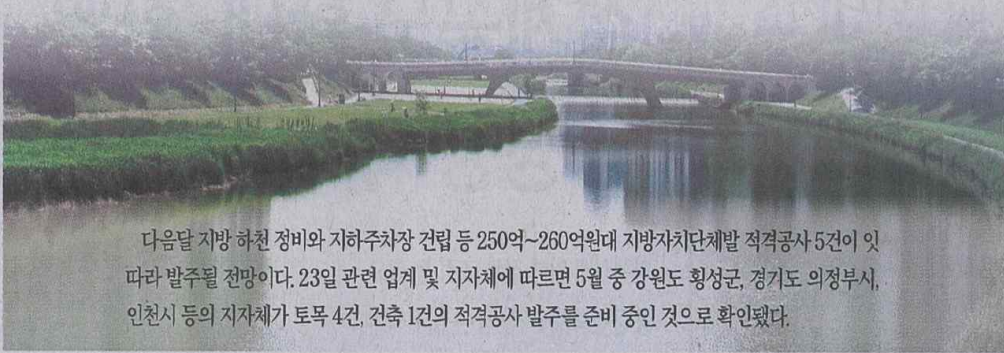


지자체發 적격공사 '5건' 5월 발주



다음달 지방 하천 정비와 지하주차장 건립 등 250억~260억원대 지방자치단체발 적격공사 5건이 잇따라 발주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5월 중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의정부시, 인천시 등의 지자체가 토목 4건, 건축 1건의 적격공사 발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강원도 횡성군은 적격 대상 하천 정비사업 2건의 발주를 준비 중이다.

우용소하천 및 방아소하천의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보강 토목공사로, 이달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대로 5월 중 발주하기로 했다.

설계 완료 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회에서 다소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기준 각각 250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돼 있다.

횡성군은 중장기 사업으로 석문천·고든소하천·우용소하천·방아소하천·울동소하천 등 주요하천 5곳 총연장 1776km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인데, 이 중 석문천·고든소하천은 지난해 착공했고 울동소하천은 연내 기본·실시설계착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인천시도 동락천과 교산천 등 2곳의 하천개선(정비) 적격공사를 다음달

강원 횡성군·인천시, 하천정비 4건 의정부시, 지하주차장 집행 채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하천의 상습 수해로 인근 주거·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대대적인 하천 구조개선 토목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시설계는 내달 중 완료되며 특정 신기술·공법 의무적용 대상 공사로 발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락천 개선에는 262억원, 교산천 개선에는 257억원이 계상될 예정이다.

또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다음달 발주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 말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초 설계용역을 마치는 등 발주 준비작업은 마무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관광장 방문객과 인근 주민, 주변 상권 방문자를 위해 경관광장 및 청사앞 도로 아래 부지 1만3712㎡에 지하 1층, 연면적 7430㎡, 총 241면 규모로 주차장을 짓기로 했다.

사업비는 도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250억원이며 2020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하주차장은 'T'자형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진입로와 출입로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분산시킨 점이 특징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우병기자 mjver@